

나의 수행법

김요복 (上)



불혹을 훨씬 넘긴 50대의 여인이 된 나는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 부모와 친지들은 한두 분씩 내 곁을 잇따라 떠났고, 그럴 때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다가왔다. 여기에 의로움이 갑자기 물밀듯이 찾아왔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른 나만을 위한 텅 빈 마음을 무작정 채우려고만 했다. 우울증과 혈압 상승도 나를 쫓아왔다. 그만큼 내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갔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나는 부처님을 마음의 도피처로 삼았다. 생활이 힘들어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날마다 조그만 사찰에 나가서 공간간 설거지를 돕고 법당 청소, 화장실 청소를 했다. 막연한 기대감에 부처님께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들

렀다고 마음 속에서 부처님을 지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절에 계신 부처님은 그만 돌보고, 집에 '산 부처님'이 넷이나 되는데 남편, 아들이라는 '산 부처님'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난 그 이후로 내가 처한 상황에 당당히 맞서가면서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마음속에 담아 둔 부처님의 형상은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처님을 부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젊었을 때, 수목화를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아끼는 부처님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은 욕심

우울증 시달리다 부처님께 의지 "당신을 제 손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려오는 <천수경> 소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서 들었다.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천공 강차지 아담지승 묘진언 원사자 비밀가호"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힘들고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내 모습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지나갔다.

이후 난 마음의 갈등과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좋다는 수행법은 다 찾아다니며 배웠다. 선지식들의 책도 수없이 읽어보았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이해는 안 되고 날 섰는 글귀들만 많았다.

자성불(自性佛)은 찾지 못하고 3년 동안 밖으로만 찾다니 션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안타깝다. 속담에 얽은 아이 3년을 찾은 격이 되었다고 할까.

그러던 중, 한 스님에게 '산 부처부터 챙기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그 때부터 절에 가는 횟수를 점차 줄여 나갔다. 그

이 생겼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빌 때마다 부처님께 당신을 그리게 해달라고 원력을 모았다.

난 오직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 '부처님! 당신을 제 손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평온하고 포근한 모습을 내 손으로 그려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곧바로 서울 동산불교대학 미술반에 등록했다. 본격적인 사불수행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불수행은 만만치 않았다. 단순히 부처님을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만 사경을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관법과 호흡을 무시하고 그림이 좋아서 그려보고 싶은 충동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손만 놀리는 그림 그리기에만 전념하려 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 게다가 하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젊은 사람보다 손도 느리고 서툴러 번번히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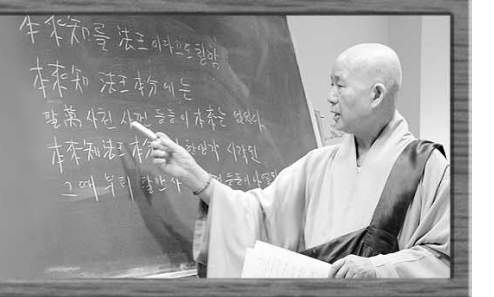
부처님의 평온한 모습을 담고자 시작한 일인데 번번하니 격정이 밀려들었다. (계속)

■ 주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선문찰요' 공부

케도를 벗어난 기차는 아무리 타고 있어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면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참선수행자들에게도 기차의 철로(鐵路) 역할을 하는 안내자가 있다. 바로 한국 선종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 스님

이 우리나라의 중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과 논에서 가려 뽑은 <선문찰요(禪門攝要)>가 그것이다.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이 3년째 <선문찰요>를 교재로 법문과 참선을 병행하는 공부 모임 '화요 선문찰요반' (회장 녹산화)을 이끌고 있다. 4월12일, 그 현장을 찾았다.



본래면목 찾는 길 열어줍니다

오후 1시 30분. 정관 스님 집전으로 <천수경> 독송이 끝나자 곧바로 <선문찰요> 강(講)이 시작됐다. 이날 공부한 내용은 사행론(四行論)의 '규역내외별상문(規域內外別相門)'.

"도를 닦는 마음을 장대(壯大)하게 하고자 할진대, 마음이 규역(規域:정해진 영역) 밖에 있음을 알지니라. 문외 '무슨 일들이 규역 밖이 됩니까?' 답하시되 '대소승의 견해를 바로잡지 아니하며, 보리심을 발하지 아니하며, 내지 일체중생의 지혜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정(定)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사람이 욕심에 탐착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내지 부처님의 지혜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자연히 한가롭고 고요하리라."



제가불자들이 4월12일 부산 영주암에서 정관 스님의 <선문찰요> 강의를 듣고 있다.

"우리는 보통 보리심을 발하라, 참선을 하라, 계를 지켜라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발하지도 말고, 지혜를 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원치 아니하면 그 마음이 자연히 한가롭고 고요하리라 했는데 이 말은 너무 격외(格外)의 말씀이어서 한편으로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달리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본래지(本來知) 본분에는 판단사건 사건 등이 본래 없었고 본래지에서 한 생각 시작된 그때부터 판단사건 사건 등이 나왔습니다. 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할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 그때부터 보살이다 부처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하는 생각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도, 중생이 되겠다는 생각도, 선(善)이라는 생각도, 악(惡)이라는 생각도, 지옥이다, 극락이다 하는 생각도 우리들이 스스로 지어낸 생각이지 본래지는 항상 텅 빈 공(空)이라는 말입니다."

스님은 "왜 마음을 비워라 하든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라고 묻은 뒤 질문에 필기를 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 없고, 마음이

한시간 법문 끝나면 참선 이어져 발심 간절해져 공부에 큰 도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은 모든 생각에서 텅 빈 자기 공(空)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공으로 돌아가 본래지를 알게 되면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옥의 주인도 본래지 자유임을 알고 나면 지옥도 마음의 거품이고 겹테기일 뿐이니 지옥이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도 마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형상이나 겹테기에 속지 마라, 관념에 속지 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관념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 자기가 말려 들고, 자기가 겁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벗

정관 스님이 말하는 '선문찰요'의 핵심

"변화 바로보는 삶의 지혜 얻을 수 있어"

"선(禪)의 요지를 밝혀 놓은 책입니다. 그럼 선이 뭐냐? 선은 마음입니다. 선은 마음 건강의 극치요, 마음 평화의 극치요, 마음 지혜로운 극치입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살벌한 경쟁시대 살고 있는 인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선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가 제도하는 참선의 길만이 모든 중생이 나아가길입니다."

정관 스님이 30년 전부터 참선 모임을 지도하고 또 3년 전부터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선문찰요> 법문을 시작한 이유가

기도 하다. 선의 씨앗을 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정관 스님이 말하는 <선문찰요>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지존(至尊)이고, 마음을 성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며 수천의 스님들이 하신 법문도 다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문찰요> 강의를 하면서 스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발심'의 중요성이다.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여서 그 에너지를 발심으로 모아야 지혜가 되고 그 마음이 인류 평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발심의 요지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변화'를 바로 보는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를 알고 싶다'는 의문과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 의문이 바로 발심"이

어나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일이 열반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 수행의 요체입니다."

스님의 <선문찰요> 강이 이어지는 동안 40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기록해가며 집중하고 있었다. 스님이 질문하면 답하고 때론 스님의 비유에 웃음 지어가며 본래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법문이 끝나고 참선이 시작됐다.

딱! 딱! 딱! 즉미 삼성(三聲). 즉미 소리가 끊어지자 정적이 감돌았다. 들이 쉬고 내쉬는 호흡시간에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일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지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본래지'를 증득하겠다는 발심으로 '화요 선문찰요반'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경전공부, 불교대학을 마치고 참선공부를 이어온 구참자들이 대부분이다. 영주암에서 30년 전부터 이어온 일요 참선반에서 공부를 계속해온 이들도 있다.

길게는 십수 년 짧게는 이제 막 참선 길에 들어선 이들도 있지만 <선문찰요> 공부 가 막연하게 앉아만 있던 공부에서 본래 마음을 찾겠다는 발심을 간절하게 해 준다'고 입을 모았다.

부부이면서 도반으로 선문찰요를 공부해 온 녹산 거사(63)와 녹산화(61) 보살은 "처음엔 막연했던 공부 가 지금은 일상생활 중에도 '나의 본래면목이 뭔가' 하는 참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얻었다"며 "하루 9시간 이상을 정진하시는 정관 스님을 표상으로 부단한 정진을 다짐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 <선문찰요> 공부를 시작한 보현행(48) 보살은 "경전공부도 하고 교리도 배우다 보니 뭔가 부족함을 느꼈고 본래면목을 찾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돼 참선을 시작하게 됐다"며 <선문찰요>가 뚜렷한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글·사진=천미희 기자

'선문찰요'는

경허(鏡虛) 스님이 엮은 책으로 참선(禪)을 하는 집안(門)의 핵심(要)을 모아(纂) 놓은 책. 상권에는 중국 고승이 지은 13편의 명제가 수록돼 있다. 하권에는 보조국사의 <수심결(修心訣)> <진심직설(真心直說)> <권수정해결사문(勸修定慧社文)> 등 수행자를 위한 저술을 비롯하여 천척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상·중·하 3권으로 돼 있다.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마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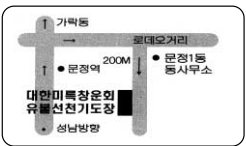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공력에너지, 생령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힘으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